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지난 1994년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의 타고난 본성에 맞게 사육하지는 취지에서 도입된 프리덤 푸드(Freedom Food)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20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발췌하였다.

- ◆ 이번에 시행된 인증제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11.8.4)에 따라 검역검사본부 고시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시행 되었으며,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금년에 최초로 산란계 농장에 도입하였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

### 01 산란계농장에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준수해야하는 기준

- |   |   |
|---|---|
| <p>1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 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 내용을 2년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함</p> <p>2 농장내 사육시설은 계사형태의 경우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란장소는 산란장이 7마리당 1개 이상이어야 함</p> <p>3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 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바닥면적이 성계는 1㎡당 9수 이하여야 함</p> | <p>4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가와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가 이루어지고, 조명도는 내부 조명은 균일하고 10 lux 이상이어야 함</p> <p>5 사육장에 별도의 방목장을 확보하여 방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 이상이어야 하고,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상으로 하는 출입구가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함</p> |
|---|---|

## 02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

- 1 검역검사본부에 인증심사 신청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 2 검역검사본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심사 완료
- 3 현장심사 세부일정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현장심사 실시
  - 전체적인 인증심사 기한은 신청일부터 3개월임

## 03 동물복지 축산농장 최종 인증심사 및 인증절차

- 1 지자체 동물보호감사원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원이 인증 신청농장 방문
  -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농장평가 실시
- 2 농장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최종심사
- 3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검사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
  - 인증 받은 농장 및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표시 할 수 있음
  -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식품 취급판매장에는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도 실시

## 04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의 예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p>동물복지 (ANIMAL WELFARE) 농림수산식품부 인증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p>	생산자	홍길동
	인증번호	동물복지-10-01-1-*
	전화번호	031-***-****
	품목(축종, 추가인증사항)	계란(산란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무게 또는 개수	10개

- ◆ 검역검사본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시설자금 및 '(가칭)동물복지 축산직 불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며,
-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12)산란계 → (13년)돼지 → (14년)육계 → (15년)한우·젓소 등으로 축종을 확대하고, 사육에서부터 운송·도축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제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